화장품

Jan 02, 2025

2024 년 12 월 당월/누계 화장품 수출 데이터 점검

Overweight 유지

2024년 12월 당월 화장품 수출 데이터 점검

12월 화장품 수출액은 $734.8m (YoY 25%, MoM -5%, 약 1.1조원) 시현. 지역별로 중국 $152.5m (YoY -9%, MoM -8%), 홍콩 $67.1m (YoY 157%, MoM 27%), 미국 $127.3m (YoY 39%, MoM -2%), 일본 $66.4m (YoY 29%, MoM -22%), 동남아 5국 $53.0m (YoY 21%, MoM -4%), 유럽 5국 $39.0m (YoY 59%, MoM -6%), 중동 5국 $29.7m (YoY 49%, MoM 3%) 시현.

[기초 화장품] 전체 $351.8m (YoY 17%, MoM -12%), 중국 $73.2m (YoY -27%, MoM -33%), 홍콩 $43.7m (YoY 131%, MoM 10%), 미국 $58.6m (YoY 15%, MoM -10%), 일본 $24.2m (YoY 38%, MoM -11%), 동남아 5국 $26.6m (YoY 24%, MoM -5%), 유럽 5국 $18.3m (YoY 81%, MoM -2%), 중동 5국 $11.7m (YoY 53%, MoM -20%) 시현.

[색조 화장품] 전체 $129.9m (YoY 33%, MoM 5%), 중국 $26.7m (YoY 12%, MoM 45%), 홍콩 $2.3m (YoY 6%, MoM -33%), 미국 $31.8m (YoY 58%, MoM 25%), 일본 $25.2m (YoY 44%, MoM -23%), 동남아 5국 $7.4m (YoY -13%, MoM -3%), 유럽 5국 $3.8m (YoY -23%, MoM -64%), 중동 5국 $3.2m (YoY 169%, MoM 9%) 시현.

2024년 연간 화장품 수출 데이터 점검

2024년 글로벌 화장품 수출액은 $8,588m(YoY 20%, 약 12.6조원) 역대 최대 규모 기록. 지역별로 중국 $2,163m (YoY -9%, 약 3.2조원), 홍콩 $512m (YoY 17%, 약 0.7조원), 미국 $1,555m (YoY 52%, 약 2.3조원), 일본 $841m (YoY 26%, 약 1.2조원), 동남아 5국 $612m (YoY 27%, 약 0.9조원), 유럽 5국 $447m (YoY 50%, 약 0.6조원), 중동 5국 $318m (YoY 76%, 약 0.5조원) 시현.

미국 및 유럽/중동/동남아 성장세가 유의미함. 특히, 미국 수출은 전년 YoY 46% 성장의 높은 기저에도 YoY 50% 대 성장 고무적임. 올해 미국은 K인디브랜드의 아마존 중심 성장 속 오프라인 보폭 확대가 기대됨. 최근 미국 오프라인 채널 유의미한 성과들 포착. 아누아는 24년 12월 ULTA 온라인몰 입점 후, 25년 2월까지 미국 ULTA 오프라인 전 점포 입점 예정임. 또한, 브이티 역시 미국 오프라인 중심 보폭 확대 중. 연내 ULTA 전 지점 입점 예정이며, 상반기 내 ULTA 온라인몰 입점 예정임. 미국 코스트코 오프라인 입점도 올해 상반기 내 완료할 예정.

또한, K뷰티가 유럽/중동 등 지역 커버리지 넓혀 나가고 있는 점 긍정적. 미국에서의 성공 레퍼런스를 통해유럽/중동 진출은 상대적으로 진입 장벽이 낮은 것으로 파악됨. 국내 최대 K뷰티 글로벌 유통업체인 실리콘투 역시 작년 영국/프랑스 지사를 설립하면서 유럽 지역 보폭 확대 중. 추후 중동 지사 설립도 긍정적으로 검토 중인 것으로 파악됨.

[음식료/화장품] 권우정
3771-9082,
20240006@iprovest.com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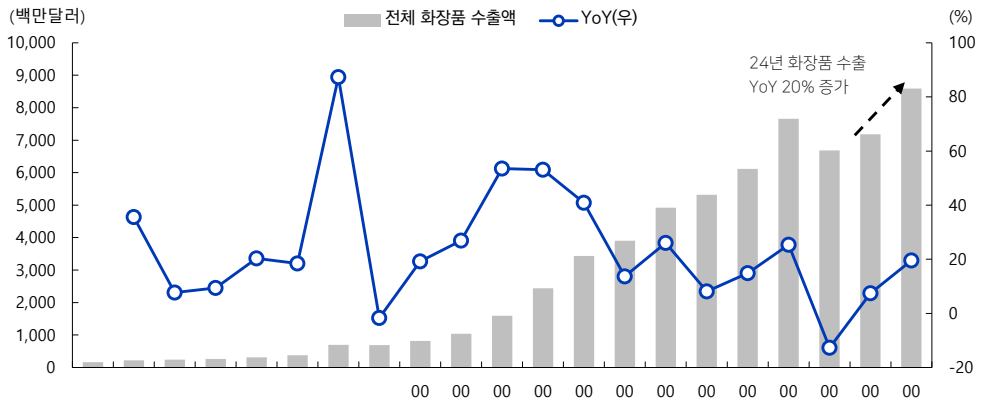
2024년 연간 품목별 수출데이터 점검

[기초 화장품] 전체 $4,552m (YoY 19%), 중국 $1,292m (YoY -7%), 홍콩 $380m (YoY 11%), 미국 $878m (YoY 58%), 일본 $282m (YoY 37%), 동남아 5국 $286m (YoY 15%), 유럽 5국 $218m (YoY 60%), 중동 5국 $151m (YoY 143%). 미국은 전년 높은 기저(YoY 72%)에도 고성장 지속 이어나감. 유럽/중동 중심 커버리지 확대도 긍정적임. 이에 따라 중국 비중은 23년 38% → 24년 28%로 1년 사이에 급감한 상황임.

[색조 화장품] 전체 $1,463m (YoY 25%), 중국 $344m (YoY 6%), 홍콩 $30m (YoY 19%), 미국 $295m (YoY 19%), 일본 $328m (YoY 25%), 동남아 5국 $110m (YoY 34%), 유럽 5국 $75.9m (YoY 37%), 중동 5국 $32m (YoY 206%). 색조 화장품은 각국의 문화/피부톤/트렌드/짧은 사이클 등 글로벌 시장에서 기초 화장품보다 상대적으로 성공이 어려움. 문화가 상이한 국가에서도 K뷰티가 약진하고 있는 흐름 긍정적임.

[도표 1] 전체 화장품 수출액 추이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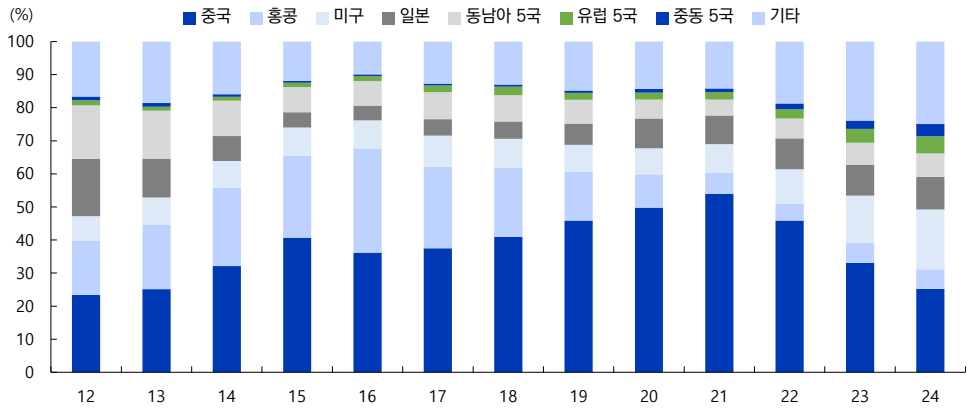
24년 전체 화장품 수출 YoY 20% 증가



자료: Trass,교보증권 리서치센터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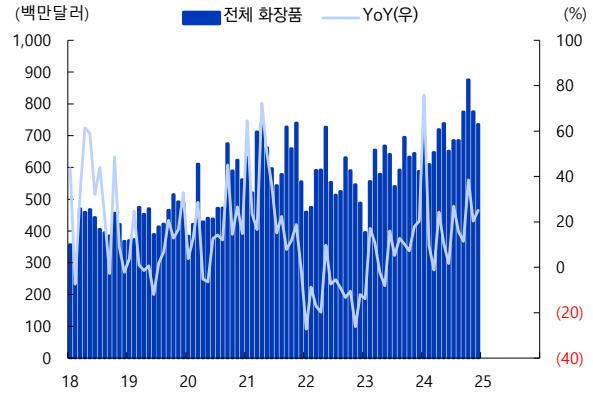
[도표 2] 전체 화장품 수출 중 국가별 비중

전체 화장품 수출 내 중국 비중 감소

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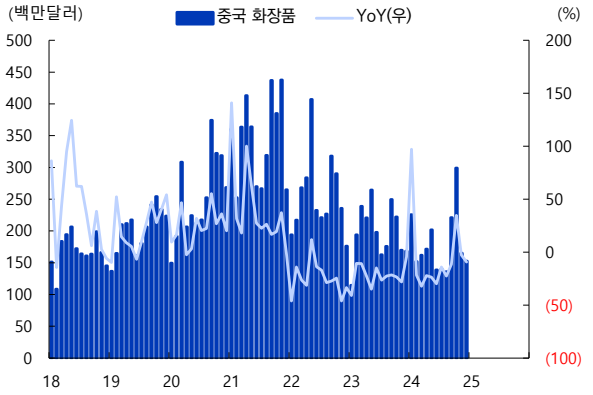
자료: Trass, 교보증권 리서치센터

[도표 3] 전체 화장품 수출액 추이

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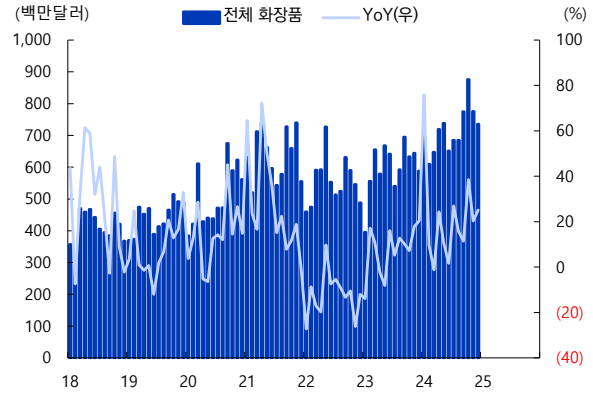
자료: Trass, 교보증권 리서치센터

[도표 4] 중국 화장품 수출액 추이

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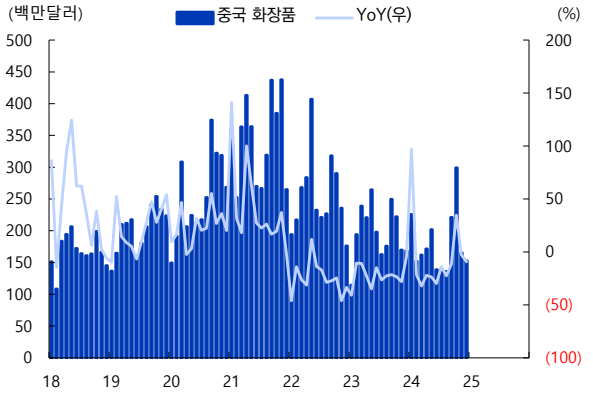
자료: Trass, 교보증권 리서치센터

[도표 5] 전체 화장품 수출액 추이

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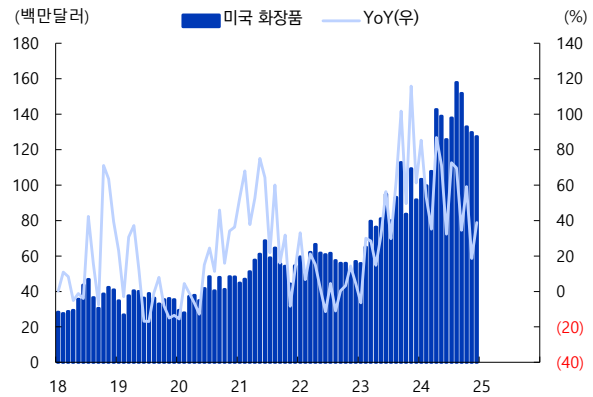
자료: Trass, 교보증권 리서치센터

[도표 6] 중국 화장품 수출액 추이

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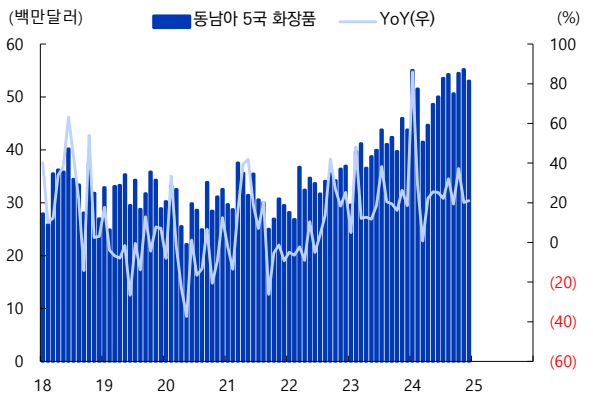
자료: Trass, 교보증권 리서치센터

[도표 7] 미국 수출액 추이

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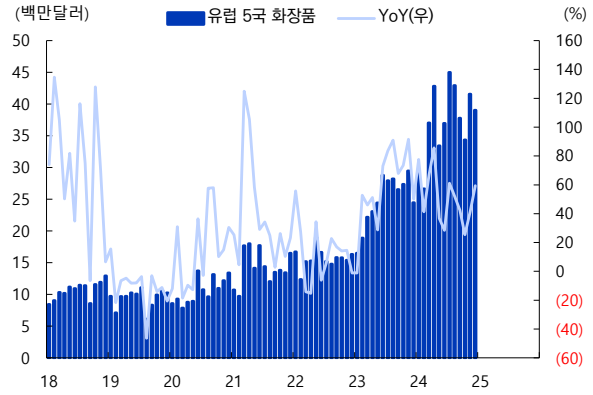
자료: Trass, 교보증권 리서치센터

[도표 8] 동남아 5 국 화장품 수출액 추이

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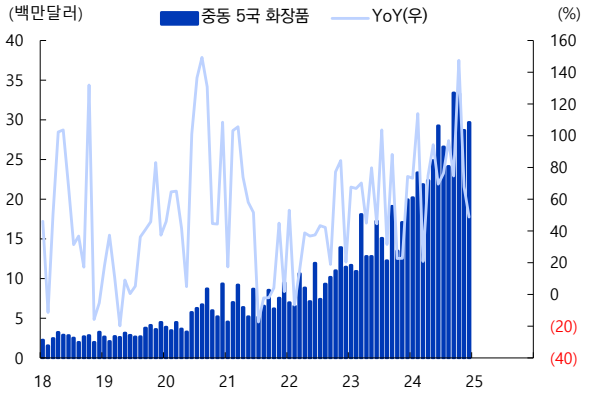
자료: Trass, 교보증권 리서치센터

[도표 9] 유럽 5 국 화장품 수출액 추이

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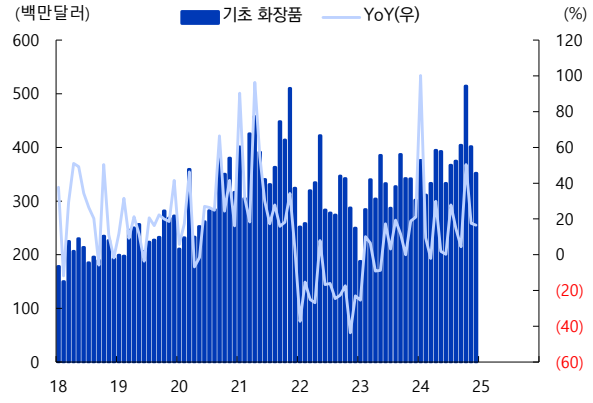
자료: Trass, 교보증권 리서치센터

[도표 10] 중동 5 국 화장품 수출액 추이

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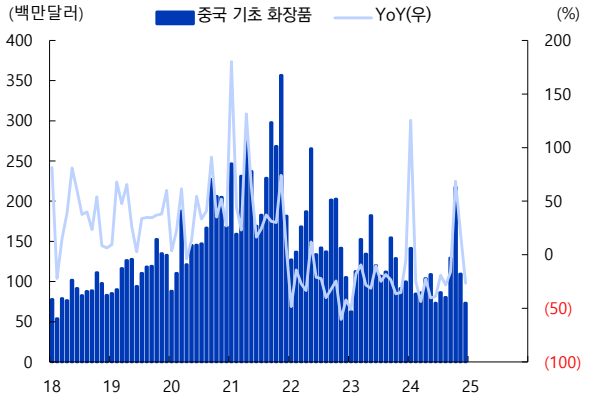
자료: Trass, 교보증권 리서치센터

[도표 11] 기초 화장품 수출액 추이

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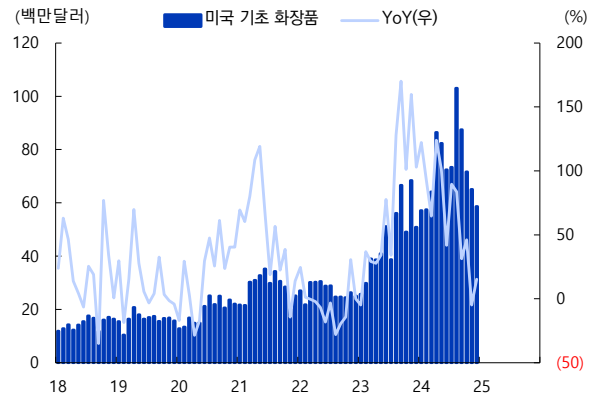
자료: Trass, 교보증권 리서치센터

[도표 12] 중국 기초 화장품 수출액 추이

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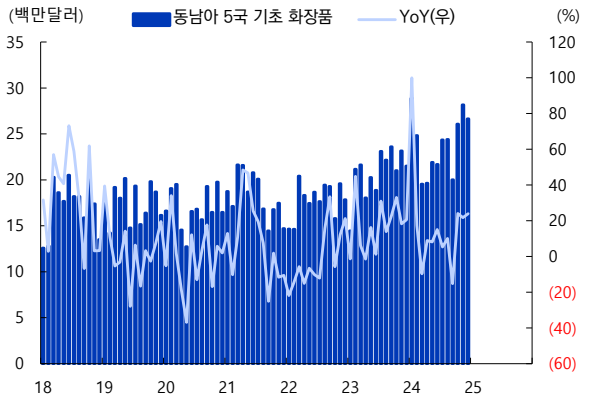
자료: Trass, 교보증권 리서치센터

[도표 13] 미국 기초 화장품 수출액 추이

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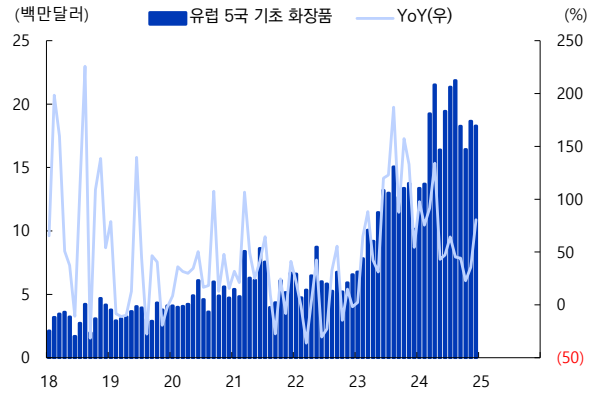
자료: Trass, 교보증권 리서치센터

[도표 14] 동남아 5 국 기초 화장품 수출액 추이

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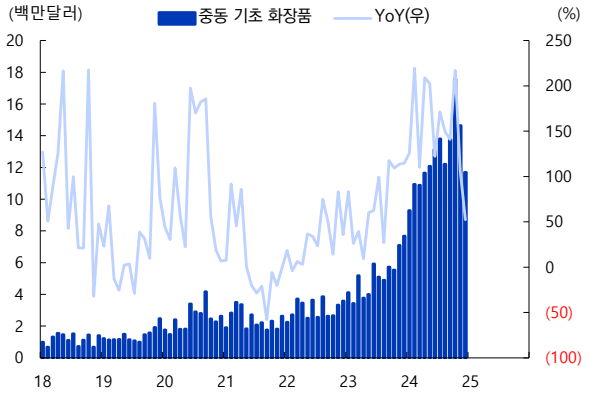
자료: Trass, 교보증권 리서치센터

[도표 15] 유럽 5 국 기초 화장품 수출액 추이

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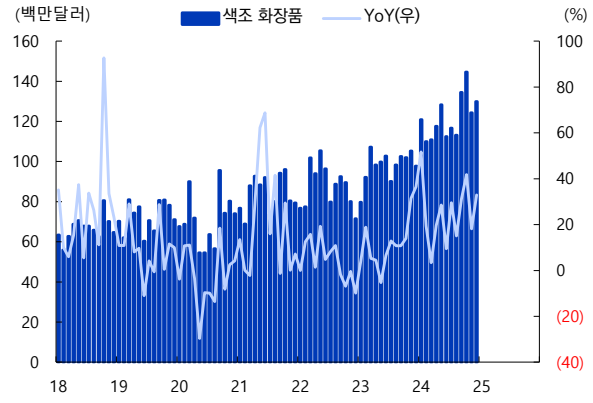
자료: Trass, 교보증권 리서치센터

[도표 16] 중동 5 국 기초 화장품 수출액 추이

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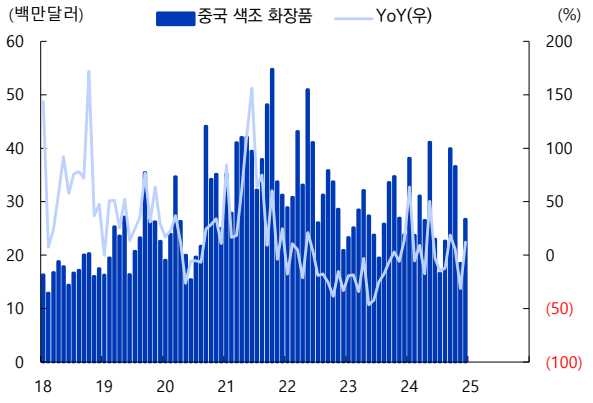
자료: Trass, 교보증권 리서치센터

[도표 17] 색조 화장품 수출액 추이

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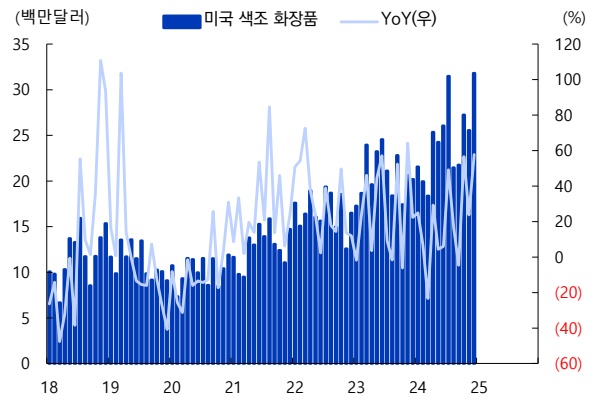
자료: Trass, 교보증권 리서치센터

[도표 18] 중국 색조 화장품 수출액 추이

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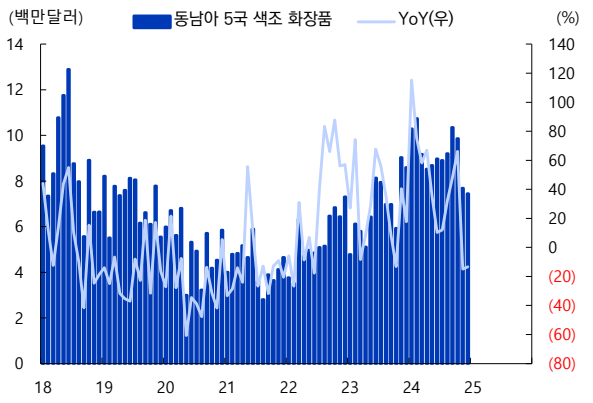
자료: Trass, 교보증권 리서치센터

[도표 19] 미국 색조 화장품 수출액 추이

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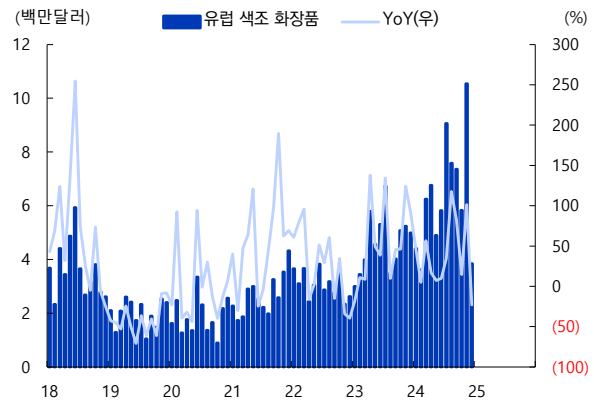
자료: Trass, 교보증권 리서치센터

[도표 20] 동남아 5 국 색조 화장품 수출액 추이

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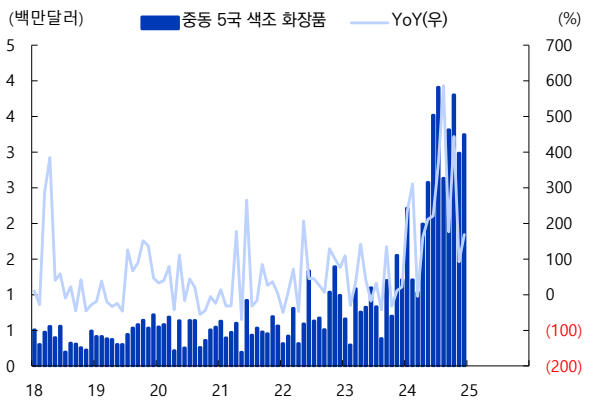
자료: Trass, 교보증권 리서치센터

[도표 21] 유럽 5 국 색조 화장품 수출액 추이



자료: Trass, 교보증권 리서치센터

[도표 22] 중동 5 국 색조 화장품 수출액 추이



자료: Trass, 교보증권 리서치센터

■ Compliance Notice ■

이 자료에 게재된 내용들은 작성자의 의견을 정확하게 반영하고 있으며, 외부의 부당한 압력이나 간섭 없이 작성되었음을 확인합니다.

이 조사자료는 당사 리서치센터가 신뢰할 수 있는 자료 및 정보로부터 얻어진 것이나, 당사가 그 정확성이나 완전성을 보증하는 것이 아닙니다. 따라서 이 조사자료는 투자참고자료로만 활용하시기 바라며, 어떠한 경우에도 고객의 증권투자 결과에 대한 법적 책임소재의 증빙자료로 사용될 수 없습니다. 또한 이 조사자료의 지적재산권은 당사에 있으므로 당사의 허락 없이 무단 복제 및 배포할 수 없습니다.

· 동 자료는 제공시점 현재 기관투자가 또는 제3자에게 사전 제공한 사실이 없습니다.
· 전일기준 당사에서 1% 이상 보유하고 있지 않습니다.
· 추천종목은 전일기준 조사분석 담당자 및 그 배우자 등 관련자가 보유하고 있지 않습니다.

■ 투자의견 비율공시 및 투자등급관련사항 ■ 기준일자_2024.12.31

구분	Buy(매수)	Trading Buy(매수)	Hold(보유)	Sell(매도)
비율	96.9	2.5	0.6	0.0

[업종 투자의견]

Overweight(비중확대): 업종 펀더멘털의 개선과 함께 업종주가의 상승 기대
Underweight(비중축소): 업종 펀더멘털의 악화와 함께 업종주가의 하락 기대
Neutral(중립): 업종 펀더멘털상의 유의미한 변화가 예상되지 않음

[기업 투자기간 및 투자등급] 향후 6개월 기준, 2015.6.1 (Strong Buy 등급 삭제)

Buy(매수): KOSPI 대비 기대수익률 10%이상
Trading Buy: KOSPI 대비 10%이상 초과수익 예상되나 불확실성 높은 경우
Hold(보유): KOSPI 대비 기대수익률 -10~10%
Sell(매도): KOSPI 대비 기대수익률 -10% 이하